

PI첨단소재, 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판매량 달성!
3분기 매출 745억원, EBITDA 211억원, 영업이익 159억원, 순이익 117억원 기록

- ▶ 전년비 매출 +15.7%, EBITDA +7.8%, 영업이익 +10.1%, 순이익 +34.0% 증가
- ▶ COVID-19 지속 환경에도 분기 최대 매출액 및 판매량 달성
- ▶ 신제품, 신규용도 확대로 2020년 역대 최대 매출 도전

<2020-10-26>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폴리이미드(PI) 필름 전문 제조사 PI첨단소재(178920)가 2020년 3분기매출액 745억원, EBITDA 211억원, 영업이익 159억원, 순이익 117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644억원 대비 15.7%, EBITDA는 전년동기 195억원 대비 7.8%,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145억원 대비 10.1%, 순이익은 전년동기 87억 대비 +34.0% 각각 증가 하였다 이는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며, COVID-19가 지속되며 악화된 경영환경에서 매출과 수익성 모두 이전 보다 크게 성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PI첨단소재 관계자는 “COVID-19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요 고객사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전방 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3분기 가동률이 전분기 대비 18.4% 증가한 78.0%를 기록했고, 재고소진 노력까지 더해지며 분기 역대 매출과 판매량을 달성 했다. 용도별 매출은 FPCB용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3.4%, 방열시트용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2.2%로 증가하며 3분기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특히, 한국산 방열시트용 매출이 당 분기에 23억원 발생하며 소재국산화를 위한 고객사와의 협업이 결실을 맺었다. 또한, EV(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절연용 필름이 EV판매량 증가에 따라 전분기 대비 39% 증가하며, 첨단산업용도 매출 비중이 성장하며 종합 첨단소재 기업으로의 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PI첨단소재는 하반기 신규 비즈니스 및 PI 적용 어플리케이션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OLED 소형 모바일 및 중대형 TV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디스플레이 신호 연결 역할을 하는 CoF(Chip on Film)용 필름이 최종 승인을 끝내고 본격 양산에 들어가 독점 상태인 일본산 필름 공급을 조만간 대체할 전망이다. EV(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용 PI 필름 및 바니쉬 시장의 경우 내코로나성과 절연성이 우수한 전기차 모터 권선용 바니쉬 개발을 완료했고 국내 완성차 납품을 위해 4분기 양산 공급을 개시하여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5G용 저유전 PI 필름(MPI) 시장은 업계 최저 수준의 저유전손실율(Low Df, Dissipation Factor) 제품을 개발하여 현재 양산 판매중인 6GHz용 외에 28GHz용까지 5G 소재 시장의 선도적 지위를 바탕으로 향후 5G통신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I첨단소재는 종합소재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IT디바이스용 소재부터 5G, 전기자동차용,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용 등 다양한 스페셜티 소재까지 고속성장하고 있는 전방산업 외 다양한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 판매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문의: PI첨단소재 홍솔마로 과장 (031-436-8635)**